

#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신문(2012-17년)에 나타난  
과외·소조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전일구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에서 방과후활동이 선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의 목적,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기존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방과후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이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의 현황을 보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문헌연구, 면담, 설문지 조사연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방과후활동은,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보다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방과후활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이 함께 교육을 협력해 나갈 때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이해하는 기초연구로써 추후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북한교육, 방과후활동, 교육통합, 소조활동, 교육신문.

---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I. 서론

남북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은, 그 동안 분단 가운데 생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막고, 다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사회 분야를 아울러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합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경제와 문화를 교류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의 다음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겪을 시행착오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의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더구나 교육은 한 나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야이기기에, 남한과 북한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 시기는 여러 정책의 통합 가운데 가장 후속과정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의 통합은 피해갈 수 없는 통일의 최종 목적이다. 왜냐하면 국방과 경제 등 국가 행정 전반적인 통일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그 최종 단계는 결국 사람의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sup> 그리고 사람의 통일은 곧 교육의 통합으로 귀결 될 수 있다. 교육은 지식을 얻는 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sup>2)</sup>

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이를 보완하는 방과후활동<sup>3)</sup>으로 나눌 수

1)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2)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북한연구학회』, 제3권 (2016), pp.3-22.

3) 본 논문에 사용되는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북한에서는 과외·소조활동의 용어로 흔히 사용된다(백과사전출판사, n.a). 한편 2018년 현재 남한의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

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교육은 학생들의 의무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학습의 능력을 높이고 사회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방과후활동은 정제된 수업 이외의 활동들을 거의 범위의 제약 없이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의 문화와 추구하는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래서 한 국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방과후활동은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북한교육의 연구는 남북의 교과서 비교분석과 같은 정규교육만 치중되어있어, 방과후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북한의 교육변화를 추구하고 남북의 교육통합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방과후활동은 그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방과후활동의 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방과후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이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그 동안 북한의 정규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sup>4)</sup>에 대한 김정은집권 이

---

용하는 용어는 ‘방과후학교’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방과후활동’ 혹은 ‘소조활동’, ‘씨클활동’의 용어가 사용되며, 남한의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남한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방과후활동’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4) 면담을 실시한 참여자C에 의하면 과외·소조활동은 구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로 소조활동은 남한의 동아리와 비슷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지칭하고 과외활동은 소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게 주로 노동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조활동 또한 과외시간 내에 포함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의 여러 활동을 과외·소조활동이라고 지칭할 것이며, 특별하게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외활동 혹은 소조활동이라고 사용하였다.

후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둘째, 이러한 현황을 통해 북한의 방과후활동의 특징을 정리하여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에서 방과후활동의 선도적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내고, 북한 방과후활동의 목적,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하여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증대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이해하는 기초연구로서 추후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북한의 정규교육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유지의 방안으로 유일체제와 수령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1970년대는 교육분야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한층 심화되는 시기였다.<sup>5)</sup> 이 시기에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는 소위 혁명전통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중점으로 배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고조해 나갔다. 일찍이 정권의 장기적인 집권을 위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교육의 기본 기초형성에 반영한 것이다.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교육

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에 관한 테제」가 목표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sup>6)</sup> 그리고 1986년, 김정일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의 유기체적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권력에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였다.<sup>7)</sup> 이어서 2009년에는 북한의 헌법 43조에서 ‘주체형의 새 인간’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두었다.<sup>8)</sup> 이처럼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통치담론으로써 지배이념을 끊임없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확산시켰다. 결국 북한 교육의 목적은 주로 당의 정책과 그 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서술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내용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교육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의 기사내용<sup>9)</sup>을 보면 북한의 앞으로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동안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늘리면서 교과서도 새로 편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식경제시대의 교육 발전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고, 세 번째로는 교육에 대해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시하였다.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자원마련이 쉽지 않고, 교육을 통제하는 공산주의의 시스템운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목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6)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7) 김정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8)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9) 『교육신문』, 2012년 10월 4일.

이와 같은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는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주체사상과 교육의 상관관계 연구<sup>11)</sup>, 북한교육과 남한교육을 비교하는 연구<sup>12)</sup> 등 북한의 정규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규 교과서, 교육체제에 집중하여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비롯한 비정규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북한의 방과후활동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북한의 방과후활동

북한에서 방과후활동은 주로 과외·소조활동으로 언급된다. 북한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의 참여를 국가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교수사업뿐만아니라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뿐만아니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도 옹계 조직지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中-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방과후활동은 ‘사회정치활동’과 함께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근거한다. 특히 북한은 학교 교과과정의 습득 이외에

10) 이효범(2000); 강보선(2013); 박재영(2017) 참조.

11) 강상철(1993); 임창호(2012); 김옥자(2015) 참조.

12) 이연복·문동석(2002); 김미숙(2002); 옥일남(2014) 참조.

도 노동과 선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참여와 예능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강조가 방과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조활동의 대표적인 예인 소년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으로 약칭함)<sup>13)</sup>은 방과후활동을 통한 조직생활 독려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큰 영예이자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

여러 과외·소조활동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부담을 안기는 것이 노동활동이다. 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소련과 중국에서도 노동조직은 노동자들에 대한 당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sup>14)</sup> 북한도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에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노동을 해야 할인적,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최소한의 시간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학교 학생의 경우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하며, 초급중학생과 고급중학생 1학년의 경우에는 농번기에 연간 4주, 고급중학생 2-3학년생들은 10주동안이나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에 노력봉사를 나가야 한다. 선생님도 이러한 갖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sup>15)</sup> 물론 선생님들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방과 후 재능이 있는 학생들과 소조활동을 하거나,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따로 과외지도를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북한의 방과후활동은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

13)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약칭 사로청)'은 1996년 1월에 사로청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고, 또 2016년 8월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약칭 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다.

14)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노동조합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노동관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9).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는 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북한의 정규교육에 비해서는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최운실(1990)<sup>16)</sup>은 북한의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등의 활동을 분석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활동은 정치사회교육을 위해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일반교양이나 문화교육, 여가교육의 성격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적을뿐더러 연구의 시기가 2000년 이전에 이루어져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기 어렵다. 최근에 나온 논문인 현주·김동선(2014)<sup>17)</sup>은 북한 청소년들의 체육소조활동 변화를 탈북민 면담을 활용해 질적연구로 방과후활동에 접근을 하였지만, 체육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가 남한과 북한의 과외활동에 대해 비교, 분석한 정책연구<sup>18)</sup>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영역별로 분석하고 남한의 방과후활동과 비교하여 통합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19)</sup> 이 논문은, 방과후활동은 정규교육활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없는 다른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고, ‘전인적교육’을 위해서도 기존의 정규교육과는 다른 별도의 활동 경험이 제공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북의 방과후활동의 비교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 분석의 틀은 이 논문의 집필 당시 제정된 7차 특별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5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세우고, 각 항목별로 성격,

16) 최운실, “북한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北韓』, 5호 (1990), pp. 44-51.

17)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활동의 변화,” 『한국체육사학회지』, 19권 2호 (2014), pp. 159-174.

18) 조주연 외, “남.북한 학생의 과외활동 비교·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19) 조주연 외(1998)의 논문에서는 ‘방과후활동’을 그 당시 널리 사용하였던 ‘과외활동’이나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담당기관 및 주제, 종류, 내용 및 방법, 교육적 효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본 연구에 유용한 배경 및 지식을 제공하였고 그 동안 북한의 정규교육과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북한교육 연구 중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또한 약 20년 전 자료로 그 당시 남한의 7차교육과정의 틀에 따라 준거설정을 하는 등 지금의 실정과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의 방과후활동에 주목하여, 북한의 최근 방과후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방과후활동의 연구는 탈북민들의 면담을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 진행한 데 반해, 이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하는 교육신문을 1차 자료로 분석하고 탈북민의 면담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차별점을 갖는다.

### 3. 한국의 방과후활동

한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sup>20)</sup>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지정<sup>21)</sup>하여 이 기간 안에 ‘전인적 성장’까지 도모하도록 목표하고 있다.<sup>22)</sup> 이 교육과정은 학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sup>23)</sup>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20)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2015).

21) 법제처, 『교육기본법』 (2017).

22) 교육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2015).

23) 이 교과는 초등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중학교는 국어, 도덕,

명시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정규교육과정은 저소득층의 학습을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거나,<sup>25)</sup> 지나치게 획일화되었다<sup>26)</sup>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sup>27)</sup>

한국의 방과후활동은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념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sup>28)</sup>’으로 정의된다. 기존 학교 정규교과과정과 크게 다른 점은, 그 프로그램의 선택과 비용을 정부나 학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 교사의 한정된 교육역량을 확장하여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학생이 학교 밖에서 직접 체험활동을 하는 등의 더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학교의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설학원’이나 ‘개인과외’와는 구별된다. 이는 학

---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고등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 “제43조(교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018).

- 24)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4장 1절 23조(교육과정 등),” 『초·중등 교육법』 (2017).
- 25) 황미영, “도시민민의 지역사회조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 26) 김철, “방과후학교로서 독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의 이념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권 3호 (2014), pp. 1~27
-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제 2015-74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2015).
- 28)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8a).

생의 개성과 관심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며 나아가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미리 경험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국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2016년 기준 11,775개이다. 그리고 전체 학교 가운데 99.7%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중에 62.1%인 약 360만명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만족도도 학생이 84.8%, 학부모가 83.6%로 양호한 편이다.<sup>29)</sup> 방과후학교는 그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강제참여는 금지한다.<sup>30)</sup> 강사는 현직교원이나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며, 외부강사는 교육청 단위 강사풀(pool)을 활용하거나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선정한다. 이 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를 실시하고 해당여부를 확인 한 후 계약한다.<sup>31)</sup> 이처럼 한국의 방과후활동은 도입 후 학교 시스템에 활발히 적용되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방과후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검증시스템까지도 보완하는 등 점점 발전하고 있다.

29) 교육부,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2016).

30)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8a).

31)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8b).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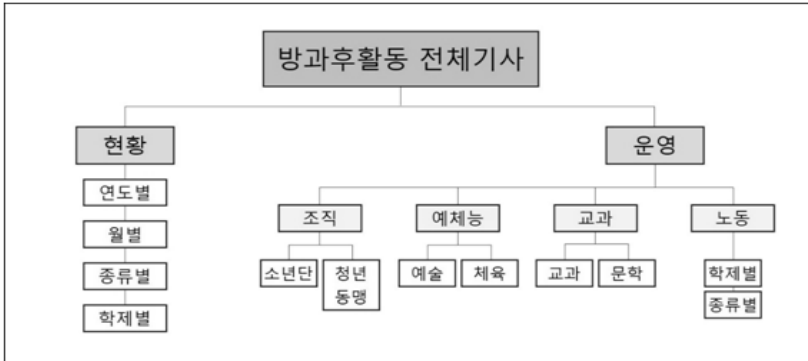
이 연구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의 현황을 보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신문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지 조사연구의 세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최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은정권이 집권한 2012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의 총 6년간 북한의 교육신문에 나타난 방과후활동의 기사 분석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 교육신문은 북한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주 발행이 되는 주간지로 총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2)</sup> 이 교육신문의 목적은 “교육부문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교육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해서<sup>33)</sup>”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신문은 북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교육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학교 부서장의 인가를 받아 2012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의 6년간의 기사인 약 1200여 페이지를 인쇄하여 사본 분석을 하였다. 그 외에 북한 교육의 개괄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와 같은 북한 1차 자료이나 통

32) “오늘호부터(교원신문)이 <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편집발행하게 된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옹계 결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교육신문>을 내오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교원신문>이 <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나가게 되며 <교원신문사>는 <교육신문사>로 명명되게 되었다.” 『교육신문』, 2004년 3월 4일

33)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649.

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한 「북한이해」 등 북한 교육을 다룬 논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하는 학급의 범위는 현재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유치원(높은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교원에 한정하였다.<sup>34)</sup> 이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신문에서 다루는 기사들을 검토하였고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 즉 과외활동이나 소조활동에 연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모두 수집하였다. 그 범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날짜, 기사제목, 기사종류, 활동종류, 학제별, 노동종류 등으로 나누어서 기사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활동의 현황과 운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그 도식표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교육신문 분석 도식표



먼저 북한의 방과후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기사의 총 개수를 확인하여 북한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을 소개하는 기사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것은 또 각각 기사의 월별 수로

<sup>34)</sup> 본 연구에서는 12년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이전인 2012년의 기사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급중학교과 고급중학교는 ‘중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나뉘어서 연중 활동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이 활동을 교과, 문학, 예술, 체육, 노동, 소년단, 청년동맹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또한 과외·소조활동이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에서 어떤 비중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방과후활동의 운영을 위한 분석으로는,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조직활동으로, 예술과 체육을 예체능활동으로, 그리고 교과와 문학을 교과활동으로 범위를 합치고 노동활동과 그 외의 공통 및 기타활동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활동의 종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에 세부분석으로는 조직생활을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기사 개수를 분류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각각의 활동 분포를 알아보았다. 예체능과 교과활동의 기사 개수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사 분포도를 파악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노동활동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별로 노동에 대해 기사의 분포도를 확인하고, 노동활동의 기사 종류를 나무심기, 토끼기르기,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방과후활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참여 대상은 북한에서 의무교육의 기간동안 재학 경험을 가진 탈북민 35명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질문들은 면담조사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신문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신문 분석의 범위가 김정은 집권 이후인 것을 감안하여 설문 참여자를 1980년생 이후로 대상하였다.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1>와 같다.

<표 1> 설문 참여자 기본 인적사항

구분		응답자 수/비율
성별	남	7명/20%
	여	28명/80%

출생년도	1980년대 1990년대	5명/14% 30명/86%
북한학교 재학시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무응답	11명/31% 13명/37% 10명/29% 1명/3%
총 응답자 수(= 각 항목별 합계)		35명/100%

또한 교육신문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완하기 위한 면담조사의 방법을 사용했다. 면담조사의 연구 대상은 북한에서 의무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유치원 높은반부터 중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및 학생이다. 면담의 질문은 교육신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신문 분석에서 다루지는 북한의 과외·소조활동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활동을 직접 지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탈북민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출신이 교사일

〈표 2〉 면담 기본 인적사항 및 특징

참여자	참여자A	참여자B	참여자C	참여자D	참여자E	참여자F	참여자G
유형	교사	교사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성별	남	여	여	여	남	여	남
출생년도	1968년	1976년	1993년	1996년	1992년	1994년	1995년
학교지역	함경북도 무산	함경북도 청진	함경북도 회령	함경북도 회령	함경북도 무산	양강도 해산	평양
교직/재학 기간	1986-1990	1996-2006	2000-2010	2003-2013	1999-2011	2001-2012	2002-2012
특이사항	중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일반학교 재학	김정은 시대 재학	제1중학교 재학	김정은 시대 재학	제1중학교 및 김정은 시대 재학

경우엔 교사 재직기간을 중점으로 면담하였고 학생일 경우엔 재학기간을 바탕으로 면담을 하였다. 이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 및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 IV. 연구결과

### 1. 방과후활동의 목적과 현황

#### 1) 목적

북한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의 목적과 중요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의 기사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아래의 기사는 2014년 9월에 열린 ‘제 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때 참석한 교사들의 토론내용의 일부를 기사화한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과목별소조활동을 잘 조직하면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폭넓고 공고하게 다지며 실지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할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과목별소조들을 조직하여 누구나 학교에 정을 붙이게 하고 배움의 열정과 량만으로 꿋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 저는 당조직의 지지 밑에 컴퓨터와 문학, 예능, 트락토르 등 20여개의 소조를 조직하고 모든 학생들을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망라시켰습니다…

“과외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내겠다.” 『교육신문』, 2014.9.11, p. 4.

위의 기사는 북한의 과외·소조활동은 학생들의 재능과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띄고 있지만,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김일성, 김

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일가에 대한 충성과 당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과외·소조활동을 조직하였고 이 활동들을 통해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충성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효과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활동이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과외·소조활동의 개성을 발전시킨다는 순수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개성을 발전 시키는데서 과외교육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외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수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다져주고 응용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으로 되며 학생들의 개성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힘있는 방도이다. 교수가 통일적인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된다면 과외교육은 매 학생들의 개성적특성에 맞게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지도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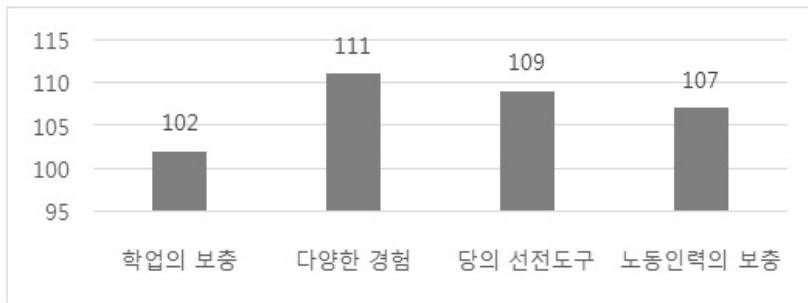
“과외교육의 중요성,” 『교육신문』, 2016.6.30, p. 3.

위의 기사는 학생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실생활과 현실에 맞도록 학생들의 시야를 확대하는 것에 그 중요성의 방점을 찍으며 그 의의를 소조활동의 지도에서 찾고 있다. 즉 배운 지식 안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을 응용하는 것을 개성 발전의 방법이자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과외·소조활동의 목적 중 하나인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신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이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면, 아래에는 이를 경험한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으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면담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 2>는 설문조사에서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신문에서 주로 나타난

과외·소조활동의 모습에 근거해서 학업의 보충, 다양한 경험, 당의 선전도구, 노동인력의 보충 등의 선택지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과외·소조활동의 목적



〈그림 2〉는 참여자가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답변 결과<sup>35)</sup>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의 보기 중에서 총 1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어서 ‘당의 선전도구’는 109점, ‘노동인력의 보충’은 107점, 그리고 ‘학업의 보충’은 102점으로 각 보기 별로 근소하게 차이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경험’이 ‘당의 선전도구’보다 근높게 나온 점은 그 원래 취지에 맞게 북한 학생들도 같은 목적을 인지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면담 참여자들의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35) 점수에 대한 합산 방법은,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이 학업의 보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라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선택하여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총 35명의 참여자가 모두 5점을 선택하게 최고점은 175점이 되고, 모두 1점을 선택하게 되면 최저점은 35점이 된다.

“일차적으로 조직에 묶어두려는... 왜냐면 애들을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묶어서 그 이제 프로파간다교육을 시켜야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일차적인 목적이요...”

-참여자F-

“과외소조활동은 국가에서 원래 목적으로 하면 공부 외의 학생들의 재능 개발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거의 과외활동을 학생들 수업 끝나고 과외활동으로 농촌이나 아니면 그런데 나가서 일하고 그런거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E-

면담 참여자들 과외·소조활동의 목적은 형식상으로는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여러 학습의 기회를 주고 그 재능을 개발시키는 목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목적 그대로 반영되기 보단 학생들을 노동에 동원시키거나 정치사상의 교육을 끊임없이 주입하기 위해 소년단이나 청년동맹과 같은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왜 해야 하는지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학생들에게 당연한 활동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한다.

##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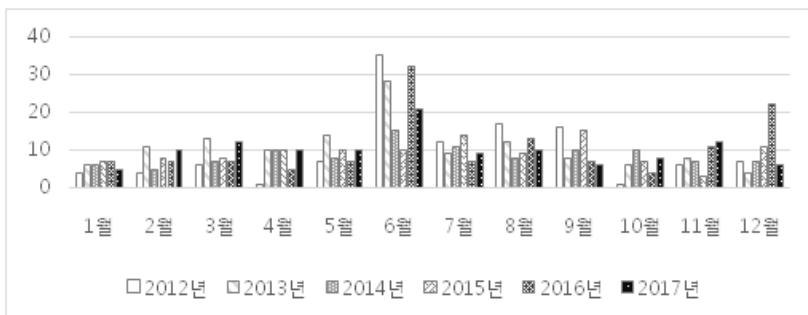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신문에서기사가 다루는 내용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교사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교육 전반을 모두 담고 있고 평균적으로 약 30개의 기사를 게재한다.<sup>36)</sup> 기사가 다루는 내용은

<sup>36)</sup> 단면적으로, 2012년 1월 19일(신년사나 김정은의 특집기사 등이 최소화한 일반적인 내용을 발행한 주간)에 발행한 교육신문의 기사 개수는 총 30개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1주년 사망일이 속해있는 기간이나 특정한 이슈가 있는(예를들어 노동당대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발표 등) 기간의 교육신문의 기사 내용은 4면 모두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사이거나 그 기사의 개수도 일정하지가 않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교사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교육 전반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중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연도별, 월별 그리고 활동의 종류별로 과외·소조활동 기사만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6년간의 과외·소조활동 기사의 개수는 709개이다.<sup>37)</sup>

이는 6년동안 100회 이상의 과외·소조활동의 기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는 것은 교육신문이 발행 될 때마다 평균 2개 이상의 과외·소조활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신문이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신문의 기사들 중에선 정기적으로 과외·소조활동에 대한 기사가 따로 없음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기사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북한 교육에 과외·소조활동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6년간의 과외·소조활동 기사의 월별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과외·소조활동 기사의 월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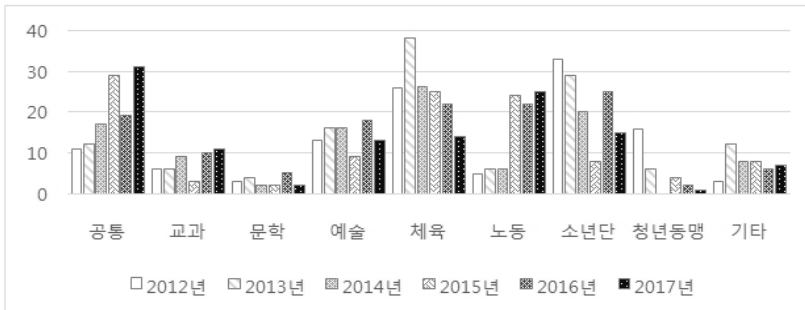


<sup>37)</sup> 12년에는 116개, 13년에는 129개, 14년에는 104개, 15년에는 112개, 16년에는 129개, 17년에는 119개의 방과후활동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림 3〉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월에 특히 기사의 수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년단 창립일이 6월에 있기 때문에 소년단 창립기념 기사가 집중 되어서 게재되기 때문이다. 그 외 월별로 기사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교육신문에 과외·소조활동에 대한 특별한 게재 기준이 없고, 기사의 게재는 학교나 교사의 활동을 소개 하면서 과외·소조활동을 언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꾸준하게 과외·소조활동의 기사가 실리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과외·소조활동의 종류별로 그 분포도를 나열한 것이다.

〈그림 4〉 과외·소조활동 종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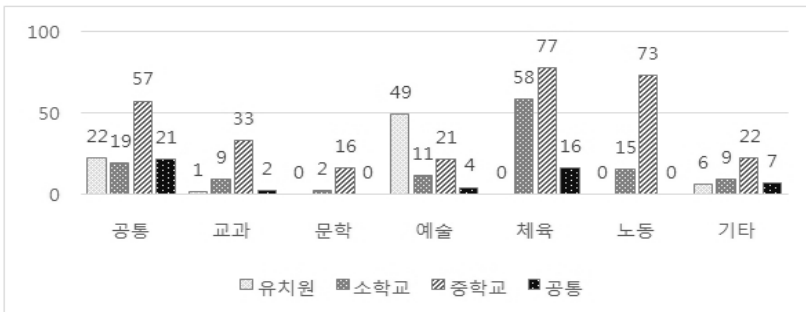


〈그림 4〉를 보면, 북한의 선군정치와 선전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체육과 예술의 활동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역시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사가 나타나고, 노동의 기사 비중도 교과나 문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시장경제의 확장 등으로 경제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노동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통은 과외·소조활동의 어떤 특정한 종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과외·소조활동 자체를 언급하거나 다수의 활동이 포함 된 기사이며,기 타로는 과외·소조활동의 관계된 사설이나 교육 지도방법들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매년 종류별로 과외·소조활동이 교육신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sup>38)</sup>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별로 어떤 과외·소조활동의 기사가 게재 되었는지 그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5〉 학제별 과외·소조활동의 종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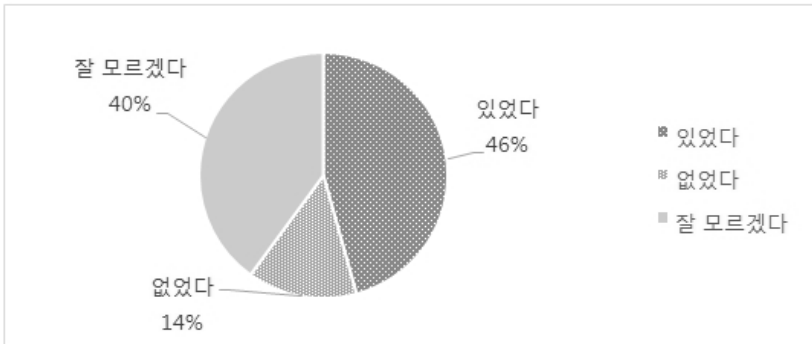
〈그림 5〉를 보면 유치원은 주로 예술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학교는 체육에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중학교는 체육과 노동에 비율이 높고 교과의 비중 또한 유치원과 소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중학교에서부터는 대학 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과외·소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이처럼 교육신문에서는 꾸준하게 방과후활동에 대해 기사화 하고 특히 방과 후활동 사례들 또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로 채워나가

<sup>38)</sup> 〈그림 5〉는 총 709개의 기사 중에서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활동을 제외한 550개의 기사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다. 그 이유는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학교별로 기사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방과후활동은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활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이를 경험한 탈북민 참여자들은 과외·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림 6>은 학교 안에서 과외·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6> 과외·소조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 여부



<그림 6>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16명으로 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잘 모르겠다'가 14명으로 40%, '없었다'가 5명으로 14%나 나왔다. 이는 과외활동의 목적을 다양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참여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정작 그 목적에 부합하게 경험한 참여자는 그 절반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면담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최근 과외·소조활동이 다양한 활동을 위하기 보다는 점점 남한의 학원과 같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거기는 대학교 하나를 바라보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거기서 대학교를 붙어야 하잖아요. 일단은 입시를 보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도 어차피 자식을 보내려고...”

-참여자D-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교습을)다 하죠. (대학 가기 위한)가르침도 필요하고”

-참여자G-

북한도 남한에서와 같이 대학 입시에 대한 열기가 높고 학교에서도 상급학교에 잘 진학시키는 것이 명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업을 위한 교과 위주의 과외·소조활동이 많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학생이 과외·소조활동을 선택하고 하고 싶어도 부모의 능력이나 교사의 허락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다. 교과나 체육, 예술활동은 뛰어난 능력이나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활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평양에서 금성제1중학교<sup>39)</sup>를 재학했던 참여자G는 평양에는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소조활동을 제외하고는 노동동원과 같은 활동은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힘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모의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부집이나 권위적인 집안에서는 자식이 이런 험한 일을 하는걸 바라지 않죠.. 북한에 만연한건데.. 자식을 (노동활동)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G-

---

<sup>39)</sup> 제1중학교는 각 지역별로 1개씩만 세워진 수재들을 위한 학교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출신성분이나 경제력 또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 내에서도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당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동원하는 경우는 다른 지방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양은 행사동원이 많아서 많은 학생들은 과외·소조활동의 명목으로 ‘아리랑’과 같은 행사준비에 투입시킨다.

“아리랑 같은 (동원 행사활동)건 거의 몇십만명이 동원되는데, 그 때 그 장엄한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공부는 그 때는 못해요, 수업 끝나고 저녁까지 하는거예요, 다음날 또하고, 그 때 되면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참여자G-

평양에는 다양한 행사가 연중내내 있고,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기피하지만, 평양시민의 특성상 행사동원에 불참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석을 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교육에서 과외·소조활동의 선택권은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행사동원과 같은 활동 또한 부모의 배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방과후활동 종류는 학교의 교장에 의해서 임의대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실제로 몇몇 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과외·소조활동이 생성되는데 교장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본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도가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나 뭐 위에 있는 분들이 아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 수학올림픽이 중요한것 같아’ 이러면 ‘수학소조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교장이 또 이렇게 뭐 우리학교에서 이런거 만들어서 운영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다른 지도방침이 내려오면 또 그에 맞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E-

“(과외소조활동은)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마음이죠 나 이런거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선생을 하나 데려오는 거죠. 데려와 가지고 거기있는 아이들로 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하는거죠”

-참여자B-

위의 참여자의 진술처럼 과외·소조활동의 구성에서 학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한 사람의 의견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만큼 과외·소조활동의 분야가학교장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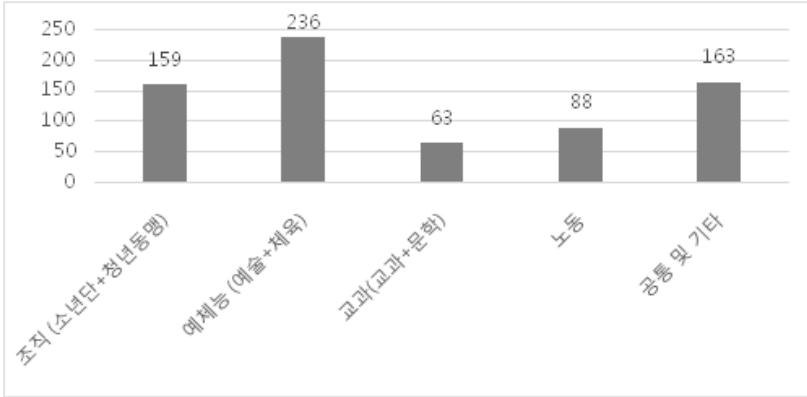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설문 및 면담 참여자들의 방과후활동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교육신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방과후활동의 목적에 벗어나서 개인의 학업증진을 위한 사교육의 행태로 발전하거나, 학생들을 조직의 형태로 통제 및 노동 착취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방과후활동의 운영

이 절은 과외·소조활동의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신문의 기사별 내용을 토대로 조직활동, 예체능활동, 교과활동, 노동활동 이렇게 네 가지 활동 종류로 구분하였다. 먼저〈그림 7〉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육신문에서 분석한 기사 709개 중에서 과외·소조활동의 종류별로 구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높게 나온 과외·소조활동은 예체능이며 그 뒤로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조직활동과 노동이 뒤따른다. 그 외에 기타의 카테고리에는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활동을 포함하거나 활동의 내용보다는 교시

〈그림 7〉 과외·소조활동의 종류 현황



와 사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조직, 예체능, 교과, 노동활동, 이 네 가지 종류를 중심으로 과외·소조활동 운영 모습을 조명하였다.

### 1) 조직활동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이다. 이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조직생활에 배어나게 하고 결속을 견고히 하기 위해 소학교에 입학 할 때부터 학생들을 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어떠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과외·소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엔 충분하진 않지만, 분명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생활하는 가장 큰 범위의 과외활동이며 소년단과 청년동맹만의 소조활동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황과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신문에서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조직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래의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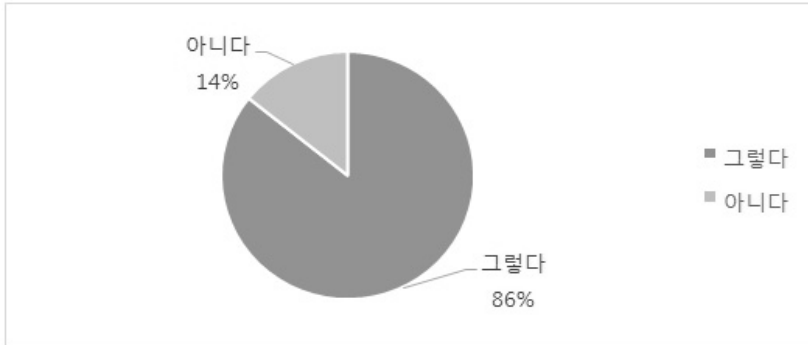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이 청소년시절부터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잘하여야 조직생활에 습성화 되고 높은 조직성을 지닌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년단 조직생활과 청년동맹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진행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워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과외학습을 열심히 하여 교수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넓혀 나가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선진과학과 기술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참다운 김일성-김정일 주의자로 자라날 수 있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학생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 『교육신문』, 2014.4.10, p. 3.

앞의 기사 내용은 학교 내의 과외·소조활동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모든 조직생활의 목적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그 적용하는 모든 활동의 목표는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개성을 발달시키기 이전에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김일성-김정일 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리고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학교를 경험한 면담 및 설문 참가자들이 소년단이나 청년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설문조사를 참여한 총 35명 중에서 30명인 8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5명인 14%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누구나 소학교에 입학하면 소년단에 입단하고, 중학교 4학년부서는 청년동맹에 입단하는 만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그림 8〉 소년단, 청년동맹 행사에 참여 유무



14%의 참여자는 소학교 졸업 이전에 탈북하였거나 입단식을 제외한 다른 행사라고 생각하였을 것을 추정된다. 왜냐하면 입단식을 통해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 가입을 하였을지라도 실제로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 학생은 주로 학급의 임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활동 경험이 있는 면담 참여자들은 조직활동의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현 하였다.

“애네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조직에 묶어두자 그래야 그냥 별탈 없으니까 그게 왜냐면 보니까 소년들은 소년들의 조직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단이 있잖아요. 그럼 성인이 돼서 뭐 입당을 하게 되면 당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당을 안 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성 조직이 있잖아요. 농민은 농민조직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 조직이 있고 나중에 심지어 은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맹 조직이 있어요.”

-참여자F-

이러한 조직활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까지도 모두 이어져 있다. 다음은 면담 참여자가 이야기한 소년단 지도원의 구조이다.

“소년단 지도원이면 학교에서 레벨이 교장, 부교장 다음에… 매 학급의 분 단 위원장들은 초등학교 단위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 말하는 전체학교 회장이죠. 그걸 비롯해서 매학급마다 소년단 위원장들을 관리하는게 이 소년단 지도원이거든요… 고등중학교(고급중학교)는 소년단 지도원도 있고 사로청(청년동맹)지도원도 있어요. 사로청 지도원들은 누구까지 관리하냐면 교사들까지 관리해요.”

-참여자A-

이런 소년단 활동이나 청년동맹의 활동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부여한다. 소년단 임원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소년단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임원이 아닌 이상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 모든 학생들이 가입해 있다고 해서 크게 혜택이나 불편함 등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2) 예체능활동

북한에서 예체능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예술선전의 영향으로 학교 교육 내에서도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일반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과외·소조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예체능에 대한 활동이 가장 보편적이고 다양하다. 이는 교육신문 내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 종류이자 북한 학교 경험이 있는 면담, 설문조사 참여자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교육신문에서 나타나는 예체능 활동과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예체능 활동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먼저 예술에 관한 과외·소조활동은 유치원 때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악기나 무용을 하나 이상은 유치원 기간 안에서 가르치며 수많은 대회를 통해 그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아래의 기사는 유치원에서부터 과외·소조활동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키

## 워나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대군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소질에 맞게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신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무용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원장 최채순동무는 모든 교양원들이 자질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리금주, 최옥심동무들로 기악소조와 무용소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소유하도록,” 『교육신문』, 2014.8.28, p. 4.

앞의 기사는 유치원의 원장에서부터 교사인 교양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질을 키우기 위해 악기와 무용을 가르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어렸을 적부터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을 통해 예술을 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예술은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접하는 활동으로서 위의 기사이외에도 악기연주, 무용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술관련 과외·소조활동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나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을 하는 것을 학생과 교사 모두 큰 영예로 삼는다.

“악기랑 음악하는 동아리가 많고 아 미술 동아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재주, 재능이 있거나 뭐 부모님이 애를 정말 가르치기를 원하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그래서 가는… 그리고 뭐 컴피디션 같은 것도 평양에서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제 보통의 한국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열성인 것처럼 거기도… 미술은 정말 재능있는 친구들만 갔던거 같아요.”

-참여자F-

위의 면담 참여자도 학교 내에서의 과외·소조활동은 예술 관련한 활동이 많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면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때문에 부모들도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활동이기도 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체육에 관한 과외·소조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학생들만이 가능하다고 한 면담 참여자도 있었다.

“체육은 정말 돈 많은 애들만 다 있었어요.. 잘 먹어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애들이 뛰는 건 진짜 싫어해요... 근데 체육소조 하려면 하루 종일 뛰어야 하잖아요. 정말 잘 먹고 체력 좋아야 되니까”

-참여자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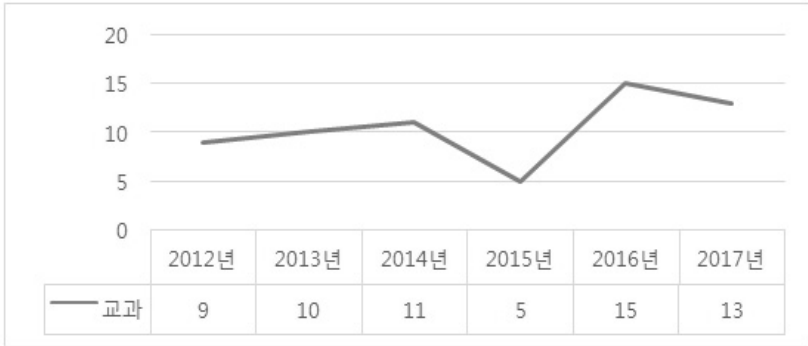
위의 면담 진술과 같이 유니폼이나 축구공의 구입 뿐만 아니라 체육과 같은 과외·소조활동은 체력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끼니 문제가 해결된 집안의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육 과외·소조활동에서도 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교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체육에 관련된 활동은 북한 학교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외·소조활동의 종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3) 교과활동

교과<sup>40)</sup>에 관련한 과외·소조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림 9>와 같이 교육신문 내에서의 기사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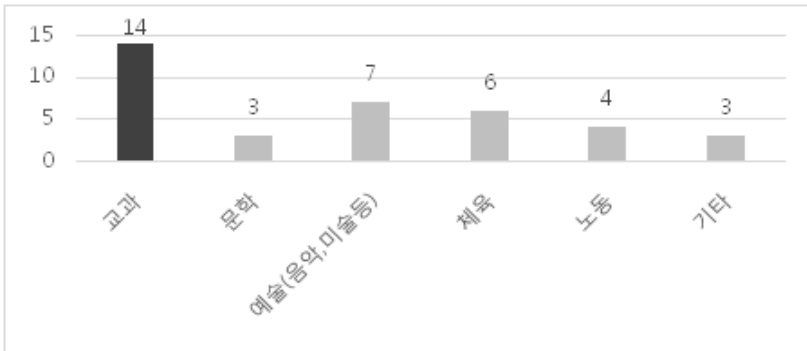
<sup>40)</sup> 여기서 교과라는 것은 문학, 수학, 영어 등 정규교육과정인 수업시간에 다루고 있는 과목들을 의미한다.

〈그림 9〉 교과 관련 방과후활동 기사의 연간 개수



〈그림 9〉와 같이 교과 관련 과외·소조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하게 기사로 다뤄져 왔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 10〉의 설문참여 결과와 같이 실제로 과외·소조활동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교과 관련 활동의 비중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10〉 참여했던 과외·소조활동의 종류



〈그림 10〉은 북한 학교에서 과외·소조활동에 참여했던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교과관련 활동에 참여한 응답은 1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술(음악, 미술 등)이 7명, 체육이 6명, 노동이 4명, 문학과 기타가 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신문에는 교과활동 보다 예술이나 체육의 활동의 기사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기사는 과외·소조활동 중에서 특히 교과에 관련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리원제1중학교에 최첨단돌파전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고있다... 다매체 편집물들이 련이어 창안제작 되어 여러 학과목들의 강의와 과외학습지도에 적극 리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희망, 취미와 소질에 따라 수학소조, 물리소조, 컴퓨터소조 등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자체학습능력, 속독능력, 정보처리능력, 과학연구능력, 협동능력도 체계적으로 키워주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의 기상이 내려치는 수재양성기지,” 『교육신문』, 2012.7.19, p. 3.

위의 기사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국 학과경연이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수재학교라는 칭호를 얻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교과 관련 과외·소조활동을 경험하였던 참여자는 면담을 통해 소조활동에 대한 참여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

“...영어, 수학, 이런 거는 이제 올림픽 같은 것도 하고 경연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대회 준비를 하려면 이게 약간 두뇌도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서 나가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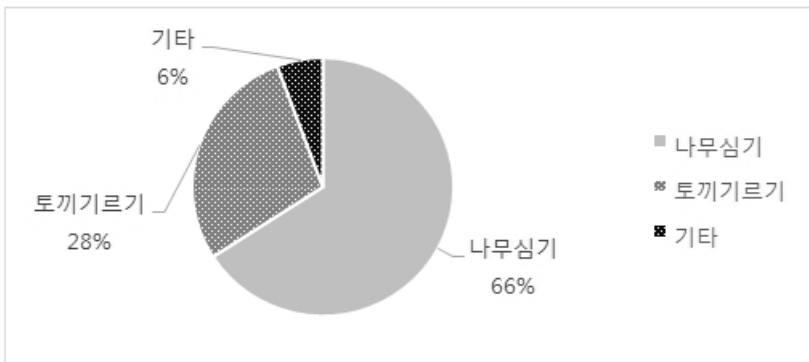
-참여자C-

위의 참여자의 진술처럼 교과 관련 과외·소조활동은, 학교에서 대회의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별하여 특별 그룹을 만들어서 임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과활동 또한 과외·소조활동의 보편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 4) 노동활동

북한의 교육정책에서는 학생의 노동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노동 없이는 농번기의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학교의 자급자족도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절에서는 과외·소조활동으로서의 노동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노동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11>은 노동활동기사 중에서 그 종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과외·소조활동의 노동 종류



나무심기가 66%로 가장 자주 기사에 게재되었고 그 뒤로 토끼기르기가 28%를 차지했다. 아래의 기사는 가장 많은 노동의 비율을 차지하는 나무심기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리마구역 천리마고급중학교 교장 리영란동무의 사업을 놓고보자… 리영란동무에게는 나무심기준비사업부터가 전투였다… 나무심기에 동원된 학생수와 그들의 정신육체적, 심리적 준비상태를 분석해볼 때 점령해야 할 목표는 너무도 아름답것이었다… 바로 이런 일군들이 오늘 현실이 요구하는 작전가가 아니겠는가.

“현실은 이런 작전가를 요구한다.” 『교육신문』, 2015.9.24, p. 3.

위의 기사는 북한에서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러듯이 나무심기에도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동원되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지라도 점령해야하는 목표, 즉 학교의 수립화가 완성된다면 그런 불편은 감수 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성격을 담고 있다. 다음 기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토끼기르기에 대한 과외·소조활동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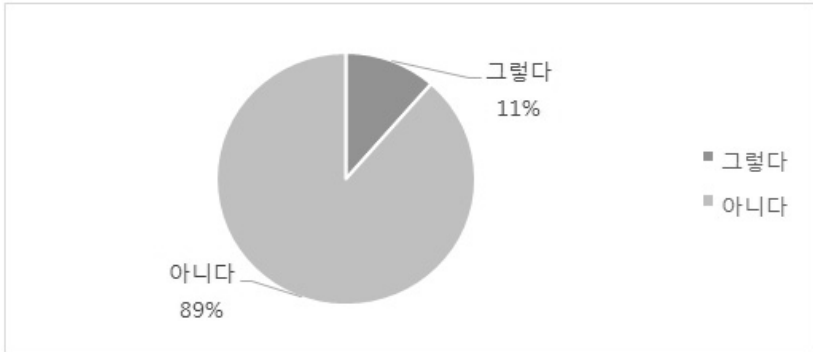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끼기르기와 피고철수집사업을 비롯한 좋은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운전군2중영예의 붉은기 운전소학교에서 토끼기르기운동을 활발히 집행하고 있다. 교장 김인순, 부교장 김철용, 소년단지도원 박광훈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토끼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릴데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교원, 학생들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애국의 마음안고 더 많은 토끼를,” 『교육신문』, 2015.11.12, p. 4.

위의 기사를 보면, 나무심기와 마찬가지로 토끼기르기도 김정일의 교시에 근거를 두고 학교의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무심기와 토끼기르기를 제외한 기타의 노동에 관한 과외·소조활동은 철길주변관리하기, 염소나 돼지기르기 등이 있다. <그림 12>는 노동 관련한 과외·소조활동의 참여가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이다.

‘그렇다’가 4명으로 11%, ‘아니다’가 31명으로 89%의 결과로 보아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노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노동과 관련된 과외·소조활동은 면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언급한 분야이다.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노동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림 12〉 노동에 관련한 과외·소조활동의 자발적 참여유무



“장마가 와서 뚝이 무너지면 막 뚫고 대부분 많은 게 농사를 많이 하죠. 김 메고 파종하고 그거 다음에 가을 수확 도와주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던거 같았어요... (3·4월)그 때는 나무심기 하러가는거 같아요.”

-참여자D-

“농촌지원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달내지 한달 반 정도 아예 농촌에 가 가지고 거기서 아침에부터 다 일하고 먹고...”

-참여자E-

위의 참여자들처럼 농촌에 대한 노동활동이 가장 많았고 1년에 한 달 이상은 집을 떠나와서 농촌일만 해야 할 만큼 그 강도는 매우 높았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농촌 일 외에는 봄에 학교에서 나무를 심거나, 철길 내에 있는 침목을 놓는 일도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에 대한 대가는 학생이 아닌 학교가 가지고 가고 주로 교장이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가를 받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마다 노동활동에 대한 비중도 조금 달랐는데, 그 지역의 수재가 모이는 제1중학교과 같은 경우는 노동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저희 (제1중학교)학교는 좀 더 수업을 (노동활동보다)많이 했어요. 저희 학교가 제1중학교다 보니까 (노동)과외활동에서 우리 학교만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은 무조건 매일 오후에 나가는데 우리는 뭐 3일에 한번 나간다면, 뭐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면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참여자E-

“평양에서도 상급학교에서는 그런(동원활동, 노동활동)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되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자G-

농촌지원 활동은 그 지역의 학교들이 모여서 함께 노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마다의 노동의 대한 비중을 차별화 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을 해야하는 시간에 소조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그 노동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소조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노동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학생들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한다. 문제는 이런 교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감당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은 학업에 관련된 소조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 시간에 대부분 노동활동에 동원된다.

“그 예술하는 친구들은 소조연습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뭐 아니면 저처럼 돈 주고 빠져도 되긴 하는데…”

-참여자F-

이러한 모습은 집안의 배경에 따라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개인교습을 전 문으로 하는 교사들을 통해 특정 과목들을 선행하는 사교육에까지 퍼져있

다. 다른 학생들이 노동하는 시간에 소위 집안이 좋은 학생들은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된다는 것은, 북한의 교육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학교 방과후활동, 즉 과외·소조활동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신문 등의 문헌조사와 면담,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북한은 정권초기에서부터 조직생활을 강조해 왔으며 학교 교육 안에 끊임없이 북한식의 공산주의 주체철학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창조적 인재’를 목적으로 하지만 모든 활동이 당의 존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순적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권의 유지와 이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활동, 특히 소년단이나 청년동맹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발굴 보다는 체제의 유지가 우선시 되고 그 필요에 맞게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 마치 북한이 극장국가<sup>41)</sup>의 모습을 갖기 위한 풀뿌리의 역할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비탈리 만스키 러시아 감독의 영화 “태양아래<sup>42)</sup>”에서 소년단 입단식의 모습을

41)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권 4호 (2007), pp. 109~131.

42) 2016년 4월 47일 개봉한 영화. 진미라는 학생이 소년단에 입단하는 시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화. 제작초기에 비탈리 감독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고 하였으나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고 조작하는 북한 당의 행태를 보고 카메라를 off해 놓은 척 하며 모든 과정을 몰래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연구결과에서 본 북한 학교 방과후활동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방과후활동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학교의 조직적 통제 목적으로 행해진다. 대외적으로는 학생들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교육 기회의 확대를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소년단과 청년동맹 등의 조직이 범위 내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시스템 되어있다. 그리고 이 통제의 범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교사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만큼 조직의 정해진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그 지시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방과후활동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만들 수는 있지만 북한의 모든 학교 내에 자리잡은 조직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방과후활동이 예술과 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예술과 체육의 기본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안에 담겨있고 이를 수업시간 내에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방과후활동이 예술과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선정선동과 공연문화를 즐겨하던 김정일, 북한 전역이 반미를 외치는 가운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을 초청해서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거나 마식령 스키장을 재정난 가운데에서도 무리해서 건축했던 김정은의 지난 통치 모습에서 그들의 예술과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체육과 예술은 북한의 기념일 때마다 행사동원을 이유로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 몸을 통제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게 하는데, 이는 미셸푸코가 주장한 규율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

---

녹화하여 재판집 하였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북한의 민낯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sup>43)</sup>

셋째, 방과후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 북한은 오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농기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외에도 독이 무너지거나 철길 보수 등에도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일들이 직접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학생들이 그 노동 현장에 방과후활동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동원이 된다. 학생들의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노동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북한 학생들은 당연하게 이 노동이 ‘습관화’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방과후활동이 사교육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80-90년대와 같이 북한도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의해서 방과후활동이 대학을 보내는 수단으로서 변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따로 교과 관련한 과외교육을 시키거나 예술이나 체육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체능 전문교사를 개인교사로 두고 교육을 시킨다. 이런 개인지도들을 통해 교사가 추가 수입을 얻는 행태들이 늘어나면서 공교육만을 의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sup>44)</sup> 또한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친분을 쌓고 그 친분으로 대학의 추천서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오히려 자본의 힘이 학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오랜 가난으로 인해 생존에 입각한 물질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무계획적인 시장의 형성과 중국 자

43) 김영희·김병욱, “푸코의 몸, 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2013), pp. 8~37.

44)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권 4호 (2007), pp. 109~131.

본이 들어오면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커져서 나온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특징의 대부분은 남한이나 해외의 방과후활동에 서는 보기 힘든 북한만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기에 이런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교육통합의 첫걸음이자, 이런 차이의 분명한 인식이 향후 통합된 정책을 수립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 사교육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먼저 남한은 북한보다 몇 걸음 앞서서 교육의 문제들을 당면해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점점 팽창하고 있는 무분별한 사교육의 성장에 공교육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활동의 차이를 인지하고 통합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특징을 교육신문과 탈북민 설문,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의 틀과 그 학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변화 의지가 있을 경우 방과후활동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방과후활동은 다른 여타교육과 마찬가지로 선군정치와 선전선동의 북한 당 차원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로서 방과후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이해하는 기초연구로서 추후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신문은 노동신문과는 다르게 전자DB구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모두 수작업으로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방과후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선별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색인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기사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는, 분석한 교육신문의 기간과 설문 및 면담 참여자들이 받은 교육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북한의 탈북민의 수는 급감하였고, 또한 아직 김정은의 집권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이 기간에 방과후활동을 경험한 탈북민을 찾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에서 1-2년이라도 방과후활동의 경험이 있는 젊은 탈북민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세 번째는, 용어를 완전히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과후활동이라는 단어는 남북 모두 통용이 되는 용어이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신문 내에서 게재되는 기사나 설문, 면담조사에서는 과외·소조활동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결국 가장 큰 범주의 의미를 가진 방과후활동의 용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직접적인 기사의 내용이나 설문, 면담에서는 과외·소조활동이라는 말을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의 과외·소조활동을 비롯한 방과후활동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반영하여, 북한의 방과후활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이해하는 작업은 북한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안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방과후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본 연구가 북한 방과후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보선.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권 (2013), pp. 259~284.
- 강상철. “북한교과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에 관한 내용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권 2호 (1993), pp. 155~186.
- 권현익 · 정병호. 『극장국가』. 파주: 창비, 2013.
- 권혁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등교사의 참여도 제고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4권 3호 (2013), pp. 213~232.
- 김미숙.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12권 1호 (2002), pp. 43~65.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김수동 · 양애경.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의 비교 분석과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권 2호 (2014), pp. 41~60.
- 김영희 · 김병욱. “푸코의 몸, 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외소 적용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2013), pp. 8~37.
- 김옥자.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 (2015), pp. 59~86.
- 김 철. “방과후학교로서 독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의 이념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권 3호 (2014), pp. 1~27
- 김현희 · 임경원.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겪는 어려움.” 『특수아동교육연구』, 17권 2호 (2015), pp. 233~255.
- 도종훈 외. “방과후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수학교사들의 인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7권 1호 (2014), pp. 93~108.
- 박재영. “북한 『세계력사』교과서의 동아시아 관련 서술의 변천(1954-2002)-전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5권 (2017), pp. 85~111.
- 박현정 외. “중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효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7권 2호 (2014), pp. 573~596.
- 육일남. “남북한사회과 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이해교육 방안 탐색.” 『사회과교육』, 53권 4호 (2014), pp. 1~27.

-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노동조합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노동관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9.
- 윤유진·김현철. “사교육, 방과후학교, EBS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권 1호 (2016), pp. 385~417.
- 이연복·문동석. “남북한 초등 역사교과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41권 2호 (2002), pp. 75~95.
- 이준호·황혜선. “사교육목적과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권 2호 (2016), pp. 1~14.
- 이효범. “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치관연구: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 3·4학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4권 2호 (2000), pp. 235~267.
- 임창호.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 개념과 서술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권 (2012), pp. 287~316.
-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권 4호 (2007), pp. 109~131.
- 조주연 외. “남.북한 학생의 과외활동 비교·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 조호연.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최운실. “북한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北韓』, 5호 (1990), pp. 44~51.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 편도식.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표말란·정은희.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권 1호 (2009), pp. 249~274.
-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8a.  
\_\_\_\_\_.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8b.
-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북한연구학회』, 3권 (2016), pp. 3~22.
-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활동의 변화.” 『한국체육사학회지』, 19권 2호 (2014), pp. 159~174.
- 황미영. “도시민민의 지역사회조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1989.

### 북한자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교육신문』. 2004, 2012-201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김정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편집위원회, 2017.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_\_\_\_\_. 『조선대백과사전(간략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4.  
\_\_\_\_\_.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n.a.

### 기타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2015.  
\_\_\_\_\_.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2016.  
\_\_\_\_\_. 『초·중등 교육법』. 2017.  
\_\_\_\_\_.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018.  
법제처. 『교육기본법』. 2017.

A Research o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xtra  
- curricular & Sojo Activities in the Education Newspaper since  
Kim Jong-un's Regime (2012-2017) -

Jun, Ilgu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urpose, operation, and features of after-school activities in North Korea. Since after-school activities include a variety of activities outside of regular curriculum, they can be studied as a product that reflects societal values. Therefore, an analysis of after-school activities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North Korean society. In spite of this,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focuses on formal education; research on after-school activities is very limited.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after-school activities in North Korea by examining the purpose of these activities and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who have engaged in these activit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by this study include document analysi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his research examines the unique features of North Korea's after-school activities,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after-school activities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se differences will assist in reducing unnecessary conflicts when establishing

integrated education polic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current features of after-school activiti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work together and find points of integration rather than unilaterally changing one country's education system. This study is therefore meaningful as a basic study to understand after-school activities in North Korea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 for any future attempt to integrate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Educatio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 Extra-curricular, Sojo Activities, Unification Education, Education Newspaper.

**전일구 (Jun, Ilgu)**

---

연세대학교에서 통일학 석사졸업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한국컴패션에 재직중이며 전인적 어린이양육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교회 대상으로 비전캐스팅 및 교육컨설팅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관심연구분야는 북한교육, 남북교육정책, 교육개발협력 등이 있다.